

G. Engel의 “뽀어구스디노”에 나타난 『고백록』의 한국적 읽기*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뽀어구스디노”와 『고백록』의 한국적 읽기

1. 아우구스티누스와 한국교회의 참회의 영성
2. 한국적 읽기의 과제: 사회적 영성을 향하여

III.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7.01>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인명의 표기는 다음 글을 참고했다. 이덕주, “엔겔(G. Engel)의 선교사역과 신학사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32(2010), 83~125. 한글이름은 다음 책을 따라 왕길지(王吉志)로 표기했다. 이상규, 『왕길지(Gelson Engel)의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 발음상 유사한 왕길(王吉)과 좋은 소식(吉志)을 전한다는 뜻이 결합된 이름이라고 한다.

• ABSTRACT •

Augustine and Korean Church: focusing on reading of *Confessiones*

Prof., Moon, Si-Young (Namseoul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reread G. Engel's "St. Augustine", which is the first foreign writing related to Korean acceptance of Augustine. It is estimated that Engel's paper which titled "St. Augustine" partly contributed to bringing the spirituality of conversion to the Korean church. In other words, Engel introduced Augustine's story and emphasized the Christian significance of conversion. Moreover, Engel's paper has some factors which could be evaluated as a metamorphosis that transforms the Koreans' emotions of repentance to Christian spirituality of conversion. However, critical reading is needed for overcoming the tendency to regard Augustine's conversion as a dramatic and one-time event or a touching testimony. In particular, (1) understanding from Augustine's basic question is needed and (2) concern on Augustine's whole process of conversion including intellectual conversion and moral conversion is required. Based on this critical reading, Korean church have to pursue the social spirituality.

Key words: Augustine, Conversion, Korean Church, Spirituality of Conversion, Social Spirituality, Metamorphosis

I. 들어가는 말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Hipponensis)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은 어떤 것일까? 영어식 이름 ‘어거스틴’은 한국교회에 친숙하다. 그리고 ‘탕자에서 성자로 변화된 인물,’ ‘모니카의 기도,’ 그리고 『고백록』(Confessiones)은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가 널리 알려진 것은 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것도 이유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설교자들의 역할이 컸다. 회심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교의 예화로 사용되고 있는 덕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을 설교하는 한국교회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 하지만, 짚어두어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아우구스티누스는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회심의 아이콘’일까? 그의 회심은 설교자들의 예화에서처럼 갑작스러운 일회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통한 참회의 영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놓친 것은 없을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화기 주한 외국인 저술에 나타난 한국사상과 외래사상의 만남을 가정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한국적 수용과 관련된 최초문헌이라 할 G. Engel(왕길지)의 “뿔어구스티노”에 관심하는 이유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전수되었으며,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성찰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지닌 참회의 영성으로부터 윤리적 성숙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뿔어구스티노”와 『고백록』의 한국적 읽기

1. 아우구스티누스와 한국교회의 참회의 영성

1) G. Engel의 “뿔어구스티노”¹⁾ 다시 읽기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저술의 방대함 탓에 버거운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비례하여 연구 또한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가톨릭의 한국전래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를 영세명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리라 추정되지만, 학술문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서양중세철학의 수용과 번역의 문제를 다룬 정준영은 “1953년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조차 중역본 1종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안타까워한다.²⁾ 같은 맥락에서, 그가 “1919년 평양신학교의 『神學指南』에서 ‘뿔어구스티노’를 다룬 것이 가장 이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왕길지의 글을 찾아낸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³⁾ 이 점은 교회사학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⁴⁾

1) 이 글에서 참고한 왕길지의 1차문헌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왕길지, “뿔어구스티노,” 『神學指南』 1(1918). *평양신학교에서 발간한 이 문헌은 ‘RISS’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2) 정준영, “근대 한국사회에서 서양중세철학의 수용과 번역의 문제,” 『시대와 철학』 30(2003), 26.

3) 같은 글, 27. *다만, 왕길지의 글이 발간된 것은 1918년 3월로 확인된다.

4) 이상규, 『왕길지(Gelson Engel)의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 125., 이덕주, “엔겔(G. Engel)의 선교사역과 신학사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32(2010), 97., 한명근,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근대자료의 내용과 성격,” 한명

「신학지남」 창간호에 수록한 “뽀어구스티노”(St. Augustine of Hippo)라는 논문에서, 앵겔은 어거스틴의 생애뿐 아니라 그의 저술과 제자까지 상세히 언급하여 교부신학과 중세신학, 그리고 종교개혁 신학의 흐름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어거스틴 연구의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⁵⁾

이러한 뜻에서, 왕길지의 글은 주목받을만하다. 다만, 그것이 최초의 문헌이라는 점에서만 의미를 지닌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특히, 정준영이 왕길지의 글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및 저술에 대한 초보적인 소개글에 지나지 않는다”고⁶⁾ 깎아내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왕길지의 글이 아우구스티누스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초보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평양신학교 교수로서 그가 한국의 목회자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 글은 “뽀어구스티노”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뽀어구스티노”에서, 왕길지는 한국적 포맷에 맞추어 세로쓰기 형식에 국한문혼용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한국문화에 맞추어 소개하려 노력했다. 글은 전체 3분 구조로서, ‘내력’(來歷)- ‘기서’(記書)- ‘제자’(弟子)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내력’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를 정리하여 소개했다. 주로 『고백록』의 흐름을 따라 소개했지만, 회심 이후의 사건들도 추가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보통의 경우는 회심까지만 다루는 것에 비해 볼 때, 나름의 전문성을 추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교회의 성직자로 세움을 받는 과정 및 펠라기우스 논쟁, 도나투스 논쟁 등에 대한 짧은 언급도 포함하여 아우구스티누스를 가급적 전체의 모습으로

근 외,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통해 본 근대의 수용과 변용』(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9), 54.

5) 이덕주, “앵겔(G. Engel)의 선교사역과 신학사상,” 105.

6) 정준영, “근대 한국사회에서 서양중세철학의 수용과 변역의 문제,” 30.

전수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기서’ 부분에서는 (1)자복서(自服書, 『고백록』), (2)철학논문, (3)교리 논문, (4)도덕저술, (5)쟁론문, (6)변증문으로 나누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을 소개한다. 『신국론』(*De civitate Dei*)을 『상제지국』(上帝之國)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교회의 모든 변증문 중 제일 중대한 저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⁷⁾ 또한 해석기서(解釋記書)로 시편 주해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자’ 부분에는 당대와 후세의 여러 학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특히 개척교회의 “루터 선생과 칼빈 선생이 어구스티노 교리를 많이 의지했다.”고 기록한 것은⁸⁾ 한국교회 신학의 좌표를 ‘아우구스티누스 - 루터 - 칼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뜻에서, “**聖어구스티노**”는 신학적 무게감을 충분히 지닌다. 왕길지가 평양신학교 교수였고 「신학지남」을 창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글은 신학강의를 위한 부교재로 사용되었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강의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聖어구스티노**”가 평양신학교 강의노트에 불과하다는 뜻이 아니다. 평양신학교의 학술지「신학지남」에 게재한 것은 평양신학교의 신학교육과 장로교 목회자들의 신학형성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로, 왕길지는 “1900년 10월 29일 부산으로 와 1937년 3월 25일 한국을 떠나기까지 36년 5개월간 부산과 평양에서 봉사한 선교사였다.”⁹⁾ “독일 출신으로 영국 국적을 갖고 활동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였던 그는 독일인으로서 타고난 기질과 영국인으로 터득한 지식을 겸비한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귀국 후 1939년 7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¹⁰⁾ 주목할 것은

7) 왕길지, “**聖어구스티노**,” 『神學指南』 1(1918), 70.

8) 같은 글, 73.

9) 이상규, 『왕길지(Gelson Engel)의 한국선교』, 8.

10) 이덕주, “**엥겔**(G. Engel)의 선교사역과 신학사상,” 89~96.

그가 평양신학교에서 교육선교사(강사로 활동한 시기도 포함)로 사역한 1906년부터 은퇴하여 귀국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덕주가 말한 것처럼, 왕길지의 선교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평양신학교 교수 사역이었다.”¹¹⁾ 평양신학교에서 강의는 왕길지의 중요한 봉사였고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이었다.¹²⁾ 또한 호주장로회 대표성을 가지고 한국 장로교회 목회자 양성기관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¹³⁾

특별히, 「신학지남」의 책임편집자로서, “왕길지는 1918~1921까지 13권의 책을 발간하고 27회의 글을 기고했다. 신학지남은 교육기간이 짧았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목회현장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관련하여 왕길지는 1918년 5월에 44명이 참가한 강좌에서 〈어거스틴의 생애와 교리〉를 특별강의로 시행했을 정도이다.”¹⁴⁾ 왕길지가 아우구스티누스만을 강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지속적으로 강의하고 전수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왕길지의 글을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소개’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석상의 독창성 혹은 논점이 없었다고 비판할 여지는 있겠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초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편해 보인다. 왕길지가 아우구스티누스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수하려 했던 측면을 읽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11) 같은 글, 92.

12) 이상규, 『왕길지(Gelson Engel)의 한국선교』, 117.

13) 이덕주, “엥겔(G. Engel)의 선교사역과 신학사상,” 91.

14) 정병준, “호주장로교 선교부의 대부(大父) 왕길지 선교사,”

<https://blog.naver.com/jbjoon63/30094892957> (2020.5.16.),

2) 아우구스티누스와 회심의 한국적 맥락

왕길지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전수하려던 가치 중에서 눈에여겨 볼 것은 회심과 관련된 참회의 영성이다.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왕길지가 한국교회에 참회의 영성을 전수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평양신학교가 발간하는 학술지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다룬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신학자를 소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처럼 왕길지를 ‘한국교회의 교사’(Doctor ecclesiae Corea)라고 까지 추켜세울 필요는 없지만,¹⁵⁾ 평양신학교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신학적 교양이 풍요로워져야 한다고 보았던 왕길지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준 영향력은 분명해 보인다. 왕길지가 1918년 3월 창간한 「신학지남」의 창간취지에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교역자 및 교양있는 지식인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려는 했다는 점은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말하자면, “장로교회의 목사와 신학생들에게 신학의 향방을 지남(指南)하려는 목적이었다.”¹⁶⁾

이러한 「신학지남」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다룬 것은 신학적 교양의 함양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여준 참회의 영성을 전수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를 소개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 즉 『고백록』에 나타난 회심을 다룸으로써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졸업하여 활동중인 목회자들에게 참회의 영성을 전수하는 데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소개할 때 어디에 방점을 두었는가 하

15) 이상규, 『왕길지(Gelson Engel)의 한국선교』, 16.

16) 같은 책, 122.

는 점이다. 왕길지의 관심은 개화기의 한국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에 있었고 ‘신학의 향방을 지남(指南)’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때이다. 그가 『고백록』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다루면서 어디에 방점을 두었는가의 문제는 이러한 ‘지남’의 취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전수하면서, 왕길지로서는 평양신학교의 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방향성 내지는 좌표를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 왕길지가 신학교수로 사역하기 전에 선교현장에서 한국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기록해 둔 내용들에 관심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회심과 세례에 관한 경험들은 간단하게 지나칠 에피소드가 아니다. 선교사로서 한국인들을 어떤 좌표와 방향성을 따라 이끌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경험이었을 듯싶다.

세례식에 참석하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어머니들이 큰 수고를 했다. 교인들은 예배 시간 동안 매우 조용했지만, 그들의 기쁨은 끝날 줄 몰랐다. ... 참여한 모두가 감동을 받았고 세례 받은 아이들과 함께 크게 기뻐했다. 선교사들의 가슴에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큰 기쁨이 있었다. 예배를 마칠 때, 여러 선교사들의 눈에도 큰 기쁨의 눈물이 보였다.¹⁷⁾

여기에서, ‘눈물’의 정서는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뿌리내린 것인 동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의 정원에서 회심하며 눈물을 흘린 것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다. 눈물로 상징되는 참회의 영성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단초가 되겠다. 『고백록』의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 정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자복하며 회심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회

17) 같은 책, 231~232.

가 그를 ‘참회의 아이콘’ 내지는 ‘탕자에서 성자로 회심한 인물’로 강조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요소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왕길지의 글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과 참회를 클라이맥스로 설명하는 부분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과 관련하여, 왕길지가 『고백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지만, 글의 구조상 강조점이 분명하다. 밀라노 정원에서의 회심까지의 과정을 상대적으로 세밀한 방식으로 기록하다가 세례 이후의 삶을 축약하는 구조이다. 회심은 그 흐름의 정점에 있다. 더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장면이 인용문으로 처리된 점은¹⁸⁾ 왕길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왕길지의 글은 단지 아우구스티누스를 한국에 소개하는 글 이상의 의의를 지닌다. “聖어구스티노”에서 『고백록』 소개가 분량상으로도 대부분(55~87면에 걸쳐 게재한 글에서 55~66면 부분에 해당)을 차지한다는 점만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분량편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고백록』을 회심의 관점에서 읽고 있다는 반증인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왕길지가 한국교회에 신학을 ‘지남’하려 했다는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나타난 참회의 영성을 한국교회에 제시하려던 취지는 부정할 수 없겠다.

짚어야 할 것이 있기는 하다. 회심은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것인가? 다른 이들의 회심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회심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인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무엇’(something new)이었을까를 짚어보자는 뜻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개화기 한국인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배경으로서 아시아 종교와 자연종교에서 회심은 익숙한 개념이었다. 사실, 한국기독교의 기저에 유교와 불교는 물

18) 같은 책, 317~320.

론이고 자연종교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회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국인의 참회사상은 주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회사상은 불교문화의 요소로서¹⁹⁾ “죄업을 소멸하고 깨달음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²⁰⁾ 참회라는 용어 자체도 번역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활용된 것으로 설명된다.²¹⁾

이렇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기초한 참회의 영성을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메타모포시스’일 수 있겠다. 한국인에게 익숙했던 참회의 정서가 기독교의 참회의 영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는 뜻이다.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한국인의 참회사상을 전환시키고 참회의 영성을 한국교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에 뿌리내리고 있던 참회사상을 기독교의 그것과 동일시하거나 병치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자칫 신학적 오염 내지는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신학이 복음 이외의 인간종교와 자연신학에 오염되어 있다는 이정석의 지적에 관심해야 할 이유이다.²²⁾

이렇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Confessiones’의 번역에서도 유의할 부분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루소의 글(1782), 톨스토이의 글(1879)과 더불어 ‘3대 『고백록』’으로 평가받지만, 독창적 요소를 지닌다. 아우구스티누스 당시 로마 지식인들 사이에 진리에의 회심을 다루는 집필이 유행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19) 이성박, “중국불교의 참회사상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9).

20) 윤종갑, “현행 『천수경』에 나타난 신앙형태와 참회사상,” 『한국불교학』 85(2018), 219~247.

21) 이상욱, “고역(古譯) 경전에 나타난 ‘참회(懺悔)’ 용어의 번역과 정착 과정,” 『한국선학』 33(2012), 149~176.

22) 이정석, “한국교회의 성화론,” 『개신논집』 2(1995), 103.

자기기록(*autobiography*)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틴어로 본다면, “더불어(*con*) + 말하다(*fateri*)”에 해당한다.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책이라는 뜻에서, ‘고백’이라는 단어가 적절해 보인다.”²³⁾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재고록』(*Retractationes*)에서 13권으로 된 나의 『고백록』은 사람들을 움직여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는 도구라고 기록했다.²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 왕길지가 *Confessiones*를 『自服書』라고 번역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²⁵⁾ 아마도, 그의 통역을 도와주던 한국인들의 조력을 받은 번역일 듯싶다. 하지만,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서 ‘자복’(自服), ‘회심’(回心)이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왕길지가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참회의 기독교적 의의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요소들만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참회의 영성에 관한 왕길지의 해석이 한국교회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교회에서 참회의 영성이 평양대부흥을 포함한 영적 각성과 윤리개혁의 운동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그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겠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윤리개혁과 성숙을 위해 관심해야 할 핵심가치이기도 하다. 회심의 가치와 참회

23) 이 부분은 다음 책을 참고하라. 유지황, 『어거스틴의 신학사상 이해』(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5). 그리고 『고백록』의 여러 번역이 있지만, 다음 책들을 추천하고 싶다. 선한용 역,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최민순 역, 『고백록』(서울: 바오로딸, 1989), 그리고 성염 역, 『고백록』(과주: 경세원, 2016)도 추천한다.

24) *Retractationes*, 2.6.

25) 왕길지, “뽀어구스티노,” 『신학지남』 1(1918), 55.

의 영성이 주목받지 못하거나 실종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다만, 아우구스티누스를 ‘탕자’(蕩子)가 ‘성자’(聖者)로 변화된 인물이라고 하는 경우에 유의할 부분이 있다. 왕길지의 글, “뽀어구스티노”가 한국 교회에 참회의 영성을 전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여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참회의 영성을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과 연관지어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의식을 통한 이해’의 필요성이다. 다른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가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적 회심과 윤리 회심 및 성화의 노력에 이르는 넓은 의미의 회심이라는 사실이다. ‘회심과정을 통한 이해’의 필요성이다.

(1) 문제의식을 통한 이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는 허랑방탕하던 쾌락중독자가 갑작스럽게 성자로 회심한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복음서에서 모티브를 찾은 탕자(prodigal son)의 이미지는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고백록』에서 사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허랑방탕했다는 뜻을 넘어선다. 드라마틱한 간증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흥밋거리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일종의 비유이자 상징으로 읽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야스퍼스(K. Jaspers)의 용어대로 ‘근원에서 사유하는 철학자’이며²⁶⁾ 아렌트(H. Arendt)의 표현처럼, ‘자신에게 스스로 문젯거리가 된 존재’였다.²⁷⁾ 그의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26) 야스퍼스(K. Jaspers)의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서, Karl Jaspers, 정영도 역, 『근원에서 사유하는 철학자들』(서울: 이문출판사, 1984)을 참고하였다.

27) Hannah Arendt, *Love and St. Augustine*, Edited and with an interpretive essay by Joanna Vecchiarelli and Scott Judith Chelius Stark, 서유경 역, 『사랑 개념과

그의 인문학적 문제의식이었다. 여기에는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죄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질문이 포함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탕자 이야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비유이다.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존재’(homo viator)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의 해법을 리비도의 만족에서, 마니교의 교설에서, 그리고 플라톤 철학에서 찾아보려 기웃거렸고 방황의 궤적을 남겼다. 스스로를 진리를 찾는 길에서 방황하는 탕자와 같았다고 회고한 셈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386년 32세에 체험한 회심을 정점으로 회심 이전의 삶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 이후에 지닌 내러티브로서의 창세기 주해로 구성된 『고백록』의 구조는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말하자면, ‘탕자’라는 표현은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모습을 비유한 것이며 회심은 그 결정적 정점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탕자에서 성자로’ 바뀌는 과정 자체가 간단하지 않았다. 쾌락과 이단에 기웃거리는 기간에도 교회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은 매우 깊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부터 기독교에 무지했거나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도 지대했고,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병치레를 겪으면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았을 때 세례 받을 기회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밀라노 정원에서의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 세례는 번번이 연기되곤 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시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그의 결단을 연기시키는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에 관심하면서 성경을 통해 지혜를 추구하려 했으나 실망했다. 무명작가들에 의해 번역된 아프리카의 라틴어 성경은 속어와 은어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성 아우구스티누스』(서울: 텍스트, 2013), 117.

율법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진 교회의 억압적 환경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실망시켰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마니교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 즉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해왔던 터에 마니교가 답을 주는 듯싶었다. 율법주의적이고 미신적이던 당시의 기독교에 비해, 마니교의 설명법은 지적 호기심에 불타오르던 청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력적이었다. 마니교가 기성 교회의 권위적인 분위기와 구약의 투박함을 부정했다는 점이 기독교에 혼란을 느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끌었다.²⁹⁾ 게다가, 교회가 꼭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방향을 부채질했다.³⁰⁾

참고로,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의 ‘종교’란 예전(liturgy) 혹은 제의(cult)에 대한 추종을 뜻하는 용어였다. 그가 회심했다는 것은 기독교 예전과 제의를 수용하고 기독교의 도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뜻한다.³¹⁾ 386년 밀라노 숙소의 정원에서 결정적인 회심에 이른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토록 거부해하던 기독교의 예전과 기독교의 도덕을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갑작스러운 드라마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뜻에서, “뽀어구스티노”의 다시 읽기에는 참회의 영성을 강조하는 측면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아우구스티누스 고유의 맥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왕길지가 아우구스티누스 소개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참회의 영성을 ‘지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을

28)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정기문 역, 『아우구스티누스』(서울: 새물결, 2012), 63.

29) 같은 책, 79.

30) *Confessiones*, VIII.1.1~2.

31) James J. O'Donnell, *Augustine: Confessio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introduction', x xviii.

보완하여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대책없는 탕자가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회심한 듯 설교하는 한국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 설교에 화도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겠다.

(2) 회심과정을 통한 이해

왕길지의 “*성어구스티노*” 다시 읽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지적 회심과 윤리 회심 및 성화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회심 자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생의 초반부에 강렬히 추구한 주제로서, 회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하다.³²⁾ 소명(vocation)을 회심에 포함시키거나 어떤 주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거나 새로워졌다는 것도 회심이라고 보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연구자들 사이에 회심의 횡수나 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두 단계로 말해왔다. 『고백록』 VII권에서 ‘지적 회심’을, VIII권에서 ‘도덕적 회심’(moral conversion)을 각각 보여준다. 지적 회심이란 밖으로 나가던 길에서 돌이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넘어 위를 향하는 길을 포괄한다. 마침내 기독교의 진리에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가 (aversio) 다시 그분을 향해 돌아서는 (conversio) 과정이다.³³⁾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는 옛 생활에 묶인 노예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도덕적 회심 혹은 윤리 회심이 필요했다. 지적 회심 이후, 여전히 리비도에 집착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습관화된 자

32) Robin James Lane Fox, *Augustine: Conversions and Confessions*, 박선령 역, 『아우구스티누스』(서울: 21세기북스, 2020), 22.

33) 같은 책, 21.

신의 쾌락 탐닉을 안타까워한다. 성적 욕망을 포기하기를 기꺼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이것이야말로 회심이 이르기 전의 마지막이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³⁴⁾ 결정적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머뭇거림은 마치 잠을 이기지 못해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잠들어 버린 사람과도 같았다.³⁵⁾

이러한 갈등의 정황에서, 어린이들의 동요 속에서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는 소리를 듣고,³⁶⁾ 그가 롬13:13-14의 말씀을 통해 결정적인 회심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사건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회심의 정점으로 말하고 있다. 이미 지적 회심을 경험했지만, 밀라노 정원의 사건은 삶의 변화를 향한 중요한 결단이었다. 이것은 세상 욕심(spes saeculi)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과정으로서,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토록 끊어내지 못하던 리비도의 극복을 결단한 것이라 하겠다.³⁷⁾

여기에서, 『고백록』의 회심에 대한 윤리적 읽기(ethical reading)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회심에 나타난 참회의 영성을 갑작스럽고도 일회적인 사건에 대한 간증으로만 읽어서는 곤란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나타난 윤리 혹은 ‘『고백록』의 윤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하비(John H. Harvey)의 『고백록, 윤리를 말하다』(*Moral theology of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e*)는 참고할 만하다.

『고백록』이 지닌 특징 중에 윤리를 교훈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특정한 사건을 설명한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사건에서 윤리적 교훈을 도출해

34) *Confessiones*, 7.17.23.

35) *Confessiones*, VIII.5.12.

36) *Confessiones*, VIII.12.29. ‘Tolle lege, tolle lege.’

37) Robin James Lane Fox, 『아우구스티누스』, 406.

낸다. ... 인간의 목적에 관한 선언을 바탕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율법, 양심, 기도, 그리고 다양한 덕목들을 하나님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하겠다. 그 길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마련이다. 무지, 음욕, 의지의 분열, 나쁜 습관, 타락한 교육관행, 그리고 모든 종류의 죄들이 포함된다. 성경 읽기, 모범이 되는 선한 모임, 겸손, 그리고 불경건의 습관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려는 취지이다.³⁸⁾

이것은 윤리를 기준으로 『고백록』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백록』에 담긴 윤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회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오해인 동시에 한국교회가 계승해야 할 참회의 영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여주었고 왕길지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참회의 영성에서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과 그 노력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고백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의 회심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다른 기록들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성화를 위한 관심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포시디우스(Possidius)가 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Vita Augustini*)를 통해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규칙서』(*Regula Sancti Augustini*)를 통해서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삶의 본질적 전환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³⁹⁾ 그가 추구한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은 당시의 스토아철학자들의 관심을 넘어선다. 아파테이아(apatheia)에 도달한⁴⁰⁾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자’(sage)가 되기보다

38) 이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John H. Harvey, *Moral theology of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e*, 문시영 역, 『고백록 윤리를 말하다』(성남: 북코리아, 2011).

39) 문시영, “규칙서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윤리,” 『남서올대 논문집』 22(2018), 97-113.

‘그리스도의 제자’(disciple)가 되기를 원했다. 이것은 ‘현자 내러티브’에서 ‘제자 내러티브’로의 메타모포시스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할 수 있는 부분이다.⁴¹⁾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 욕심’을 포기하기로 결단한 것은⁴²⁾ 도덕적 회심 내지는 윤리회심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화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알려진 회심의 고백까지의 32년을 넘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 이후 40년 이상을 윤리적 실천에 힘썼다. 특히, 로마의 철학자들처럼 공동체 생활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수도자적 생활을 실천한 것이 대표적이다.⁴³⁾ 387년 세례를 받은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 근교에서 1년 정도 은둔하며 지낸 후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을 개조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청빈과 금욕생활을 실천했다. 391년 히포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회중들의 선출에 의해 목회자로 임직되고 396년에 히포의 주교가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주교관에서 수도원적 공동체생활을 통해 삶의 변화를 실천에 옮겼다.⁴⁴⁾

특히, 그는 ‘청빈’이라고 부르는 ‘복음적 가난’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복음의 요청으로서의 자발적 가난이라고 생각했다.⁴⁵⁾ 이것은 욕망에 기초한 요구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건유학과 혹은 지상의 재물을 경시하는 스토아학과와 다르다.⁴⁶⁾ 아우구스티누스가 추구한 복음적 가난에는 두 측면이 있다. 소극적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40) 손병석, “무정념: 현인에 이르는 스토아적 이상과 현실,” 『철학연구』 80(2008), 42.

41) 문시영, “현자에서 제자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윤리 메타모포시스,”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2(2019), 235~262.

42) Allan D.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236.

43) 이형우, ‘머리말’, Adolar Zumkeller, 이형우 역,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왜관: 분도출판사, 2006), 9.

44) 전영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 『가톨릭평화신문』 2017년 4월 30일자.

45) 변중찬, “아우구스티누스의 규칙서에 나타난 복음적 권고,” 『사목연구』 19(2007), 268.

46) Adolar Zumkeller,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47.

산다는 것은 지상의 재물에 대한 자발적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이끌어 준다.⁴⁷⁾ 적극적 의미에서, 복음적 가난은 공동소유 혹은 공유를 지향한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경제적 자산만 아니라 영적 자산의 공유도 포함된다.⁴⁸⁾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과 참회의 영성을 말할 때,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관점은 주목할만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의 본질은 예수 이야기(Jesus narrative)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성품화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을 뜻한다.”⁴⁹⁾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아왔던 내러티브에서 예수 내러티브로의 전환이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그의 강인한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은혜의 사건이었다. 단지 인사치레로 은혜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혹은 겸양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수사학적 장치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문장이 있다.

(주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나이다.⁵⁰⁾

이 문장에서, ‘주어’(主語)는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대한 이해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도덕에 있어서 은혜 중심성을 말하는 것은 고대와 중세의 분기

47) 같은 책, 56.

48) 변종찬, “아우구스티누스의 규칙서에 나타난 복음적 권고,” 261.

49) Stanley Hauerwas, David Burrell, & Richard Bondi, eds., *Truthfulness and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to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32.

50) *Confessiones*, VIII, 12, 30.

점이다. 웨첼(James Wetzel)이 말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덕적 자기성숙에 호소하지 않고 은혜에 의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⁵¹⁾ 말하자면,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임을 보여준다.⁵²⁾

이렇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지적 회심과 윤리 회심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왕길지의 “뽀어구스티노”에서 회심을 말하고 참회의 영성을 제시하여 ‘지남’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읽어야 한다. 왕길지의 “뽀어구스티노”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여준 참회의 영성에 관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참회의 영성에 머물거나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교회가 참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윤리의 지평에서 삶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2. 한국적 읽기의 과제: 사회적 영성을 향하여

왕길지의 “뽀어구스티노”가 오늘의 관점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듯 보일 수 있지만,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왕길지의 신학적 지위와 그의 의도를 추정하면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한국교회에 참회의 영성을 제시해 준 것이라는 말할 여지는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왕길지가 전수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을 통한 참회의 영성을 한국교회에 제시하는 한편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종교문화에 익숙한 ‘참회’를 기독교 내러티브 안에서 재해석할 메타모포시스의 단초를 제공했다.

51) James Wetzel, *Augustine and the Limits of Virt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26.

52) Bonnie Kent, “Augustine’s ethics”, in eds. Eleonore Stump and Norman Kretzman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25.

물론, 그가 『고백록』을 중심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소개한 과정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왕길지의 글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회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적 회심, 윤리 회심, 그리고 성화를 위한 노력에 이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을 묘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읽기에 더하여,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윤리 메타모포시스가 필요하다. 참회적 영성에서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으로 나아가야 한다.⁵³⁾ 왕길지의 글이 한국교회의 참회적 영성을 독려하는 데 기여했지만, 사회윤리 혹은 사회적 영성에 소홀해질 우려를 놓쳐서는 안 된다. 참회의 영성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회의 영성을 사사화하지 않도록 관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성으로 확장시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명림이 ‘내면 윤리의 사회적 구성’을 요청한 것에 관심할 필요가 있겠다.⁵⁴⁾ 한국교회가 참회의 영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사회적 영성에 각성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성’ 개념은 영성신학의 논제이면서도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읽혀야 한다. ‘영성적 전환’(spiritual turn)을 중심으로, ‘힐링’과 ‘공감’의 문제를 비롯한 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맥락에서 말이다. 넓은 의미에서 읽는 영성 개념을 사회적 지평에 적용하면, ‘영성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라는 상이한 개념들을 새로운 구도 안에서 접합시킴으로써 각각의 것들에 대한 지배적인 가정, 생각, 관점 또는 상황을 재구성하고 쟁점이나 문제를 재규정하려는 비판적 문제설정”이라고 하겠

53)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문시영,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0(2020), 45~71.

54) 박명림, “사회적 영성, 내면 윤리의 사회적 구성,” 『복음과 상황』 315, 웹으로 읽었다.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38>(2019. 12. 9.).

다.⁵⁵⁾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윤리의 맥락에서 조망하면, 사회적 영성이란 교회가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할 ‘문제의식’을 총칭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다.

더구나, 기독교의 영성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⁵⁶⁾ 한국교회는 공감과 환대의 교회됨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자도를 회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롬12:15) 사회적 영성을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적 환대’를 말한 부르스마(Hans Boersma)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⁵⁷⁾ 하나님의 ‘환대’로써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프(Joshua W. Jipp)의 관점 역시 좋은 길잡이가 될 듯싶다.⁵⁸⁾ 구원이 하나님의 환대에 기인하며 그것이 환대를 위한 길잡이가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고백록』의 윤리에서 사회적 영성을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왕길지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소개를 통해 이식된 한국교회의 참회적 영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성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이다. 그것은 참회적 영성의 아이콘이라 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사회적 실천에 관심했던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뜻이기도 하다.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시키고 공감과 환대의 윤리에 관심해야 한다.

55) 정용택, “도덕이 사라지는 그곳으로 영성은 가야한다,”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서울: 현암사, 2014), 162.

56) 이 표현은 다음 책의 뒤표지의 ‘책 소개’에서 인용했다.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Columba Press, 2003).

5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Hans Boersma,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윤성현 역,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서울: CLC, 2014).

58) 이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Joshua W. Jipp,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송일 역, 『환대와 구원 혐오: 배제, 탐욕, 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III. 나오는 말

한국교회의 설교예화에서 참회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과 관련하여 놓친 것은 없을까? 특히, 한국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해 짚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극적이고 단회적인 사건 내지는 감동적인 간증으로만 읽기 쉬운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를 한국에 전수한 최초의 문헌이라 여겨지는 왕길지의 “뽕어구스티노” 다시 읽기를 통해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개화기 주한 외국인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왕길지가 한국교회에 어떤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하려 했는지 살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기독교적 참회의 영성이 자리를 잡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평가할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고백록』을 중심으로 이식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 (1)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으로부터의 이해가 필요하고 (2)지적 회심과 윤리 회심 및 성화의 노력을 통전적으로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바른 읽기를 바탕으로, 참회의 영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소홀했던 것을 자성할 필요가 있겠다. 바꾸어 말하자면, 참회의 영성을 사회적 영성으로 확장시켜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서울: 현암사, 2014.
- 문시영,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 하우어위스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0(2020), 45~71.
- _____, “규칙서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윤리”, 『남서울대학교 논문집』 22(2018), 97~113.
- _____, “헌자에서 제자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윤리 메타모포시스”,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2(2019), 235~262.
- 변중찬, “아우구스티누스의 규칙서에 나타난 복음적 권고”, 『사목연구』 19(2007), 255~283.
- 손병석, “무정념: 현인에 이르는 스토아적 이상과 현실”, 『철학연구』 80(2008), 41~60.
- 왕길지, “뽀어구스티노”, 『신학지남』 1(1918), 55~87.
- 이덕주, “앵겔(G. Engel)의 선교사역과 신학사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32(2010), 83~125.
- 이상규, 『왕길지(Gelson Engel)의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
- 이정석, “한국교회의 성화론”, 『개신논집』 2(1995), 103~137.
- 정준영, “근대 한국사회에서 서양중세철학의 수용과 번역의 문제”, 『시대와 철학』 30(2003), 25~53.
- 한명근 외,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통해 본 근대의 수용과 변용』, 서울: 도서출판 선인, 2109.
- Aurelius, Augustinus, *Confessiones*. 선한용 역, 『고백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 Arendt, Hannah, *Love and St. Augustine*, edited and with an interpretive essay by Joanna Vecchiarelli and Scott Judith Chelius Stark. 서유경 역,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텍스트, 2013.
- Boersma, Hans,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윤성현 역, 『십자가, 폭력

- 인가 환대인가』. 서울: CLC, 2014.
- Brown, Peter. *Augustine of Hippo*. 정기문 역.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새물결, 2012.
- Fitzgerald, Allan 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 Hauerwas, Stanley, Burrell, David, & Bondi, Richard, eds. *Truthfulness and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to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 Harvey, John, H. *Moral theology of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 문시영 역. 『고백록 윤리를 말하다』. 성남: 북코리아, 2011.
-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Columba Press, 2003.
- Jipp, Joshua W.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송일 역. 『환대와 구원 협오: 배제, 탐욕, 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Kent, Bonnie, “Augustine’s ethics”, in eds. Eleonore Stump and Norman Kretzman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O’Donnell, James J. *Augustine: Confessio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Stump, Eleonore and Kretzmann, Norma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Wetzel, James. *Augustine and the Limits of Virt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Zumkeller, Adolar. *Augustine’s rule: a commentary*. 이형우 역.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전영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 『가톨릭평화신문』(2017년 4월 30일자).
- 박명림, “사회적 영성, 내면 윤리의 사회적 구성,” 『복음과 상황』 315,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38>.

논문투고일: 2020년 06월 24일

심사개시일: 2020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2020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개화기 주한 외국인 저술이자 아우구스티누스의 한국적 수용과 관련된 최초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G. Engel(왕길지)의 “성어구스티노”에 대한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왕길지의 ‘성어구스티노’는 한국교회에 참회의 영성이 자리를 잡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소개하고 참회의 기독교적 의의를 전해준 셈이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익숙했던 아시아적 참회사상을 기독교적 영성으로 전환시키는 메타모포시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왕길지의 관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영성을 전수함으로써 한국교회에 필요한 신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작지 않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극적이고 단회적인 사건 내지는 감동적인 간증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낳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 특히, (1)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으로부터의 이해가 필요하고 (2)지적 회심과 윤리 회심 및 성화의 노력을 통전적으로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바른 읽기를 바탕으로, 참회의 영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소홀했던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 요컨대, 참회의 영성을 사회적 영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주제어: 아우구스티누스, 회심, 한국교회, 참회의 영성, 사회적 영성, 메타모포시스
